

잇속만 챙기는 신용카드사

부가서비스 줄이고 연회비·수수료율 인상 ... 소비자 '봉' 취급

신용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올리고 신용카드와 기간을 축소하는 대신 부가서비스는 줄이고 연회비는 올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외환카드의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율을 종전 0.5%에서 0.55%로 인상했고 삼성카드도 은행 영업시간 기준 현금지급 서비스 건당 이용수수료를 600원에서 800원으로 올렸다.

현대카드도 지난해 12월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율을 0.5%에서 0.59%로 인상한 데 이어 이달 11일부터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수수료율을 동시에 올릴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롯데카드와 삼성카드 등 다른 전업카드사와 일부 은행계 카드사들도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현금서비스 취

급수수료율을 0.05~0.1% 수준에서 상향 조정했다.

카드사들은 자금조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한도와 기간도 줄이고 있다.

비씨카드의 주요 회원사들은 5월 결제분부터 일시불 및 할부결제 신용카드 기한을 축소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이 신용카드 기한을 가장 47일에서 44일로 줄이는 것 비롯해 농협하나·SC제일·기업·한국씨티 등 BC카드 가맹사도 3일씩 신용카드 기한을 축소한다.

삼성·롯데·국민·신한카드 등 나머지 카드사들도 얼마전까지 신용카드 기한을 2~3일 줄였다. 이렇게 되면 고객들의 결제대금 정산이 빨라져 카드사의 자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할인혜택 등 부가서비스를 줄이고 연회비를 인상하는 카드사들의 행태

도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현대카드의 지난달부터 'SK오일백' 카드의 연회비를 종전 5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인상하면서 오는 6월5일부터는 부가서비스 제공기준인 '전월 결제금액 20만원 이상'에서 주유 이용금액은 제외하기로 했다.

삼성카드도 이달 들어 놀이공원과 한국민속촌 할인조건을 직전 3개월 월평균 실적 10만원 이상에서 월평균 2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데 이어 오는 15일부터는 보너스포인트 적립 기준을 전월 이용실적 10만원 이상에서 직전 3개월 30만원 이상으로 강화한다.

KB카드도 다음 달 15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률을 현행 매출금액의 0.2%에서 0.1%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2%로 각각 축소하기로 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LED 핵심기술 자동차·바이오 융합시도 M&A추진하는 것이 제2기 광산업 육성

“광주 光산업 덩치키워야 산다”

한국광산업진흥회 허영호 회장 인터뷰

“국내 광(光) 산업체들이 미국·일본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면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한 덩치 키우기가 필요합니다.”

지난 4일 한국광산업진흥회 제4대 회장으로 취임한 허영호(57) LG이노텍 사장은 지속적인 R&D투자, IT·의료·에너지·환경·국방 산업과 융복합을 시도하는 한편 규모 경제를 추진할 수 있게 전략적인 M&A를 추진하는 것이 제2기 광산업 육성의 3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광주에 집적화된 광

통신, LED 업체 대다수가 중소·벤처기업으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취약한 상황”이라며 “특히 동일한 품목 생산업체간 과당 경쟁과 중복 투자 등도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지원하는 방안도 하루 빨리 모색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허 회장은 또 광주LED(발광다이오드) 분야를 성장동력으로 선정·육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 “광주에 집

적화된 100여개의 LED 산업체 대부분이 LED 응용제품 생산업체인데다, 고용 인력도 10인 미만 중소기업들이어서 한계가 있다”며 “LED와 자동차, 농업, 바이오 등을 융합한 신기술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과 함께 LED 핵심기술과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초경밀 가공 업체 육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허 회장은 앞으로 3년 동안 국내 광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전략과 비전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지원에도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김지기자 dok2000@

광주·전남 8개 상장사 배당금 줄었다

순익 1,268억에 배당 351억 불과

전년보다 24% 감소

광주·전남지역 상장사들의 배당액은 지난해 받은 돈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거래소 광주시사무소에 따르면 2008년 12월 결산법인 15개사 중 현금배당을 실시한 8개사의 배당현황을 분석한 결과 ‘배당성향’은 27.6%로 2007년의 51.3%보다 23.8%나 낮았다.

배당성향은 배당금 총액을 당기 순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지난해 지역 8개 상장사들의 당기 순이익은 1천268억원 인데 배당금 총액은 351억원에 불과했다.

이들 상장사들은 2007년에는 1천24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려 이 가운데 525억원을 배당금으로 사용했다.

배당성향이 큰 폭으로 하락한 원인은 기업들이 순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속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주주들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배당대신 현금을 쌓아 놓는 쪽을 택했기 때문이다.

또 외국인에 대한 배당금은 전년(73억원)대비 71.6% 감소한 21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배당금 총액의 6.8%를 차지했다.

배당금 총액 상위 3사는 금호산업(221억100만원), 조선내화(57억6천만원), 화천기공(22억9천만원) 순이었으며 배당성향 상위 3사는 동아에스텍(86.1%), 조선내화(64.0%), 금호산업(60.5%)이었다.

시가 배당률이 높은 기업은 부국철강(4.6%), 화천기공(4.3%), 조선내화(2.7%) 순으로 집계됐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주간 경제 정보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는 7일부터 이틀간 영암군 삼호종합복지회관에서 영암군 삼호읍 용암리 국민임대아파트 554세대(전용면적 54㎡ 296세대·68㎡ 258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062-380-0400

▲광주상공회의소는 7일 오전 삼우지구 라마다플라자 광주소

텔 4층에서 ‘제17차 광주고용포럼’ 조찬 특별강연회를 갖는다. 노진귀 한국노총중앙연구원장이 강사로 나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유지방안’을 주제로 강연한다.

▲광주·전남경쟁자총합회는 10일 오전 7시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제938회 금요조찬연수회를 갖는다. 김영환 창조아카데미 대표가 강사로 나서 ‘닌텐도의 성공 비결’에 대해 강의한다.

로또복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4 9 14 26 31 44	39	
등 위		
1 6개 숫자 일치	2,165,902,620	5
2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40,109,308	45
3 5개 숫자 일치	1,322,285	1,365
4 4개 숫자 일치	55,866	64,617
5 3개 숫자 일치	5,000	1,054,309

팝콘복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5호 800054
2	1억	1호 775310 2호 444831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	1백만	각조 83607
5	50만	각조 8285
6	2천	각조 35
		각조 15
7	1천	각조 83
		각조 1 각조 3 각조 0



기아 ‘모닝’에 쏠린 눈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모터쇼에서 5일 관람객들이 올 1분기 베스트셀링카로 선정된 기아자동차의 모닝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울남대문로 (062) 227-9940

충장점: 금남로 (062) 227-9970

방수

IPALC 하이브리드 강화 특수방수 공법

주)아바텍지평방수특수방수 (062) 21511-0444

이젠 전기요금 걱정 끝!!

순지전력(주)

www.sunchi.co.kr (06) 455-4556 (010) 9989-9989